



7월 (주관 : 신상균 장로)

구 분	안 내	봉 헌
1 부	김경선 배영희	김영민
2 부	박신형 최애경 하옥례 강승교	장석배 이윤석 고경호 김종성 박요환
차량안내	장석배 권중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기관

마애수양관 사타자교회 동가톨교회 동소하교회 하얼빈교회
 삼차자교회 철령방주교회 돈화교회 YMCA YWCA C.C.C
 중국-장경식, 김기웅 태국-신동운 일본-조원철
 필리핀-이교성 미얀마-홍길주 마다가스카르 - 박재일
 경안여고 경안성로원 경안신육원 안동교도소 안동경찰서
 범양선교회 남중국선교위원회 러시아카프카즈신학교 CTS
 국제기아대책기구 경북새터민선교회 원동교회 서미교회
 유동교회

예배모임 안내

주일낮예배	1부 주일오전 9:30	벤	엘
찬양예배	2부 주일오전 11:30		
수요기도회	주일오후 3:00	벤	엘
새벽기도회	11-2월 수요오후 7:00	벤	엘
금요기도회	3-10월 수요오후 7:30	엘	림
유치부	11-2월 월-토오전 5:30	엘	림
유년부	3-10월 월-토오전 5:00		
소년부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엘	림
중등부	주일오전 11:30	베	들 레 험
고등부	주일오전 9:30	베	들 레 험
청년부	주일오전 9:30	사	무 엘
	주일오후 10:30	다	위
	주일오후 1:30	엘	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박종석	담임목사	박장덕
부목사	이종백 배장열 홍순진		
교육목사	김영숙	교육전도사	권엘림
원로장로	권영만 박종만 박성수 반두용 권인철 신노관 김덕영 김경한 강세일 안연호 정복수 이교섭 김문현 김기일 조창래		
은퇴장로	김봉학 박종래 강신원 장봉수 김성태 오태희 안상홍 문상호 정유진 정홍경 최대규 황천석 정재홍(전임)		
시무장로	박두주 정동수 손강덕 권영준 김성수 설동한 서정용 정석진 이규운 이종기 전석우 김경일 박영복 신상균 임규선 김희동		
지회	박수경	파아노	장은혜 이지혜
오르간	신경희 강근숙 임혜광	신	디 날씨영 경계연 배의진



교회창립 1950년 9월 셋째주일

제 73권 28호

환영 *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 오후 친양예배 : 해국 신동운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봉헌시간 있습니다(사무 박향설 선교사 항암치료비).
 * 목요 경배와 친양(이번 주 주제: 순종) :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층 엘림실

모임 * 월례회 : 2부 예배 후 1부남 : 카페 / 2부남 : 카페 / 3부남 : 카페 / 5부남 : 당회실 / 6부남 : MBC 도서실 옆
 1여전 : 도서실 / 2여전 : 사무엘실 / 3여전 : 베들레헴실

알림 *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 7. 14(금)~15(토) 교회

유년부, 소년부 : 7. 21(금)~22(토) 교회

중등부, 고등부 : 7. 27(목)~29(토) 영덕 병곡교회

청년부 : 8. 3(목)~5(토) 교회

* 제39회 영글어린이대회 결과 :

1. 성경고사 / 장려상 - 소년부(홍주원, 홍주성)
2. 글쓰기 / 은상 - 소년부(이하음), 장려상 - 소년부(권시호, 조동찬, 김연재, 김단비, 김현아)
3. 그리기 / 장려상 - 소년부(허유민), 유년부(오승훈)
4. 득창 / 장려상 - 소년부(남연아)
5. 찬양율동 / 장려상 - 소년부(강재율, 강서율, 김민아, 이하랑)

* 교회 청소 : 오늘은 13팀이 담당합니다(본당, 계단, 회장실, 카페등).

* 성경통독(65) : 강도순(2) 강춘자(2) 김정애(2) 박종순 우영숙 홍태순(2) 조정화(2)

* 성경필사(2) : 강도순(2)

* 시설관리부 : 각 부서에서는 각설 사용 후 정리정돈(쓰레기통 비우기, 버리는 박스류는 어린이집 앞 쓰레기 모으는 곳) 및 냉, 난방기를 반드시 확인 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안노회 피송 김영선교사 브로질 안도오 부족 산성경 출판 감사예배 : 7. 13(목), 오전 11시, 안동교회 영곡아트홀

■ 건축헌금 계좌 : 농협 707059-51-022680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십일조, 감사헌금 계좌 : 농협 707015-51-044866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지난주 봉헌

십일조 : 강제연 강세일 구민우 권남수 김경일 김경한 김미수 김미애 김승열 김영란 김영한 김인심 김혜연 김혜령 김주희 김지혜
 김진희 김태환 김필연 남경지 남동구 민창재 박소단 박성덕 변용섭 손미에 손원배 손정희 송금주 송분남 신승현 신원순 오광섭
 유기향 이명조 이순숙 이숙희 이숙희 이연이 이동기 이진영 이은재 이희자 일석연 장은식 정순숙 정순숙 정유진 정주영 조영애 천기환
 최경분 최순남 홍태순 홍태순

감사 : 강근자 강근수 강도순 강승우 강경숙 권기한 김미수 김봉희 김수경 김수진 김순이 김인심 김재임 김정희 김주희 김지현
 김나정의 남사원 민가직 민요한 민창재 박진서 배진수 석희란 신원순 임은숙 양희기 오광섭 우영숙 유기향 이광원 이길선 이명조
 이현숙 이현수 이호동 정미성 정복수 정성진 정주영 조영애 천기환 최규원 최순남 홍주성 홍주원 홍태순 황현영 무명명
 어울림순서장

생일감사 : 배경열 변용섭 이명원 정주영 천기환

주정봉헌 : 242명

매주감사 : 215명

건축 : 강도순 고은송 권기한 권기한 권술현 김경일 김동진 김민지 김소연 김인동 김홍호 김인심 김혜령 김철중 남현연 류명례 류명희
 박장덕 배윤민 손예원 안경설 안경설 안경설 이정 이정

www.dowonch.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36663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옥동)

TEL. 054) 852-5041 / 841-7227

FAX. 054) 852-1307

www.dowonch.com

2023 표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나라
 (로마서 12:1)



주일낮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1부 09:30
2부 11:30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34:9 | 인도자

* 개회송 | 찬양대

* 예배기도 | 인도자

* 찬송 | 4장 | 다함께

* 성시교독 | 84(히브리서 11장) | 다함께

* 사도신경 | 다함께

영광송 | 595장 | 다함께

중보기도 | 1부 : 김영훈 집사

2부 : 신상균 장로

응답송 | 찬양대

오늘의 말씀 | 히브리서10:26~29 (신약p. 363) | 인도자

찬양 | 1부 : 임재 | 고등부

2부 : 나를 이끄시는 주님 | 할렐루야 찬양대

설교 | 믿는다는 건? | 박장덕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 | 오직 예수 뿐이네 | 다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 봉헌 및 찬송 | 주님 감사해요 | 다함께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찬양 | 송축해 내 영혼, 부르신 곳에서 | 다함께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후주 | 찬양대

◎ 다음주 기도 : I부 : 권택성 집사 II부 : 임규선 장로

찬양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친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15:00

인도 : 홍순진 목사

찬양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기도 | 김선녀 권사

교회소식 | 인도자

성경봉독 | 창세기12:1~9 | 인도자

설교 |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 신동운 선교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봉헌기도 | (특송:플롯팀) 해외선교부장 서정용 장로

찬양 | 다함께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다음주 기도 : 김정애 권사

수요기도회

19:30

인도 : 박장덕 목사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기도 | 이말숙 집사

찬양 | 제4부 남선교회

교회소식 | 인도자

성경봉독 | 마가복음13:28~37 | 인도자

설교 | 깨어 있으라! | 박장덕 목사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 김명정 집사

찬양 : 제5부 남선교회

가정예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찬송	274장	528장	525장	70장	254장	300장
말씀	렘2:29-37	렘3:1-18	렘3:19-4:4	렘4:5-18	렘4:19-31	렘5:1-9

지난 주일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본문 : 디모데전서1:12~17

제목 : 한 가지 더 구하옵나니...

먼저 비울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해요. 무엇을 감사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개무량한데, 직분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이거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이다. 이걸 감사합니다. 죄 사면받은 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삼아주시다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오직 감사뿐이라는 거죠.

죄를 사면받은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사도가 되게 해 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게 없었이 공짜로, 거저 주신 은혜도 정말 감개무량한데, 맘긴 은혜도 있다. 이 맘긴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다. 금융 대출 빚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빚을 30억 졌어요. 디모데가 20억 빚졌고, 제가 10억 빚졌어요. 바울, 디모데, 저에게 어느 날, 빚을 탕감하는 회년, 정부에서 바울, 디모데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30억을 받은, 바울 다 빚 갚는 데 썼어요. 디모데, 빚 갚는데 20억 사용하고 10억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 빚 갚는데 10억 쓰고 20억 남았어요. 누가 제일 기빠요. 당연히 바울보다 디모데, 디모데 보다는 제가 더 기쁘죠. 20억이 남았는데 뭘 하겠어요? 성경은 그 20억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가장 못 배웠고, 가장 못생겼고, 가장 못 가진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 정도이면, 가장 못난 자가 아닌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얼마나 실감 나는가? 실제, 바울이 못 배운 자가 아니죠. 가장 많이 배운 자입니다. 바울 집안이 못난 집안이 아닙니다. 가장 유력한 집안입니다. 바울 태생이 못난 태생이 아닙니다.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넘버 1, 빚 30억 전자, 가장 못 배운 자, 가장 뭉끌 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못난 자, 가장 뭉끌 자, 가장 못된 자에게 임하는구나!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실상,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못났다. 내가 가장 못 가졌다. 못 배웠다. 가장 쓸모가 없다. 뭉끌 인간, 못난 인간이다. 이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가장 못났고 가장 못살고, 가장 뭉끌 인간이니,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있나요? 큰소리 칠 수가 있나요. 그냥 엎드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가장 잘 생긴 자로,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많이 배운 자로, 다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를 고개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죠, 감사뿐입니다.

전쟁, 질병, 사고, 재난 때문에 비극을 만나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특별한 경우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만나는 비극, 비참, 불행은 깨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만나는 불행이 훨씬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비극을 만나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돈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일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비극을 만나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관계를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늘 기도하시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기도하시고 소리 내어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처지에서는 좀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한 가지 더 구하옵나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워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멀리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하나님께 늘 감사로 산 제사를 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